



한국 후지필름(주), 제14회 후지 필름 창작사진전 개최

한국 후지필름(주)는 국내사진인구의 저변확대와 사진애호가들의 창작의욕을 드높이기 위해 '제14회 후지필름 창작사진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후지필름 창작사진전의 공모부문은 슬라이드부문(5"×7"), 네가티브부문(11"×14")로 구분되며, 출품수량은 각 부문 5점 이내로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자유주제 작품으로 응모 자격은 제한사항이 없다.

제14회 후지필름 창작사진전 작품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본사, 후지포토살롱 및 전국영업소에서 하며 결과는 오는 10월 31일 국내 일간스포츠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4회 후지필름 창작사진전 응모요강

구 분	내 용				
공모부문 및 규격	가. 컬러슬라이드 부문 : 5"×7" (원판첨부-액자불필요) 나. 컬러네가티브부문 : 11"×14" (원판첨부-액자불필요)				
출품자격	제한사항 없음				
작품내용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자유주제)				
작품수량	각 부문별 5점 이내				
출품료	각 부문별 ₩10,000(우편접수시는 소액환으로 대체)(참가자 전원에 게 작품집 1권씩 증정)				
출품방법	접수처 양식배부(우편시는 작품뒀면 우측하단에 제목, 촬영장소, 카메라명, 사용필름, 출품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필히 필름원판 첨부)				
접수기간	'96년 9월 16일(월) - '96년 10월 11일(금)(휴무일 제외)				
심사발표	'96년 10월 31일(목) 각 스포츠지 및 개별통보				
시상식	'96년 11월 25일(월) 오후 4시(후지포토살롱)				
시상내역	구 분	인 원	컬러슬라이드부문	컬러네가티브부문	비 고
	대 상	1명	상금: 오백만원		
	우수상	슬라이드: 1명 네가: 1명	상금: 일백만원		각 부문별
	특 선	슬라이드: 25명 네가: 10명	상금: 삼십만원		각 부문별
	입 선	슬라이드: 70명 네가: 30명	상품: PROVIA 10롤	상품: REALA 10롤	각 부문별
작품전시회	부 문	전 시 기 간		장 소	
	컬러슬라이드	'96년 11월 25일 ~ '96년 11월 30일		후지포토살롱	
	컬러네가티브	'96년 12월 2일 ~ '96년 12월 7일		(충무로 2가 소재)	
행정사항	가. 입상자 전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접수를 부여 나. 특선이상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됨				

접수처 및 문의처	<p>다. 작품발표 시상 이후라도 타 공모전 등에 중복입상 사실이 발각되면 상금 및 상품은 반환</p> <p>라.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우송중 파손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요망</p> <p>마. 낙선작 반출</p> <p>① 기간: '96년 11월 25일(월)~ '96년 12월 7일(토)</p> <p>② 장소: 최초 접수처에서 반출(본사: 광고판촉과, 지방: 해당지역 영업소) 등기우편접수자: 본사에서 우편으로 반송 조치</p> <p>가. 접수처</p> <p>① 서울지역: 본사 광고판촉과 및 후지포토살롱</p> <p>② 지방: 각 지역 영업소</p> <p>③ 우편접수: '96년 10월 1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바람.(우편 겹봉투에 "창작사진전 출품작" 표기)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삼덕빌딩 5층) 한국후지필름(주) 창작사진전 담당자앞</p> <p>나. 문의처</p> <p>① 서울지역: 본사(02-561-7000(교환 372-373번)) 후지포토살롱(02-266-3722)</p> <p>② 기타지역: 인천(032-868-8301) 부산(051-462-9725) 대구(053-743-6360) 대전(042-252-4070) 광주(062-529-5838) 전주(0652-242-4458) 영동(0391-648-4886) 마산(0551-46-0031) 제주(064-53-3486) 수원(0331-36-9150) 원주(0371-43-1011)</p>
-----------	---

한국코닥(주), 수신자 부담 클로버 서비스 운영

한국코닥(주)에서는 대고객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신자 부담의 클로버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처음 신설된 코닥 클로버 서비스(TEL. 080-900-1900)는 고객의 불편사

항을 제거하고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고객만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소비자와 업소를 위한 두 분야의 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우선 일반소비자들의 코닥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클레임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상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닥제품을 비롯한 사진에 관한 각종 정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함으로써 최고의 품질과 아울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닥 익스프레스 업소나 전문점 등을 위해서는 기존에 영업사원이 수행해오던 제품 주문에서 배달까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코닥에서는 실제로 지난 10월부터는 제품의 주문이나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 계산서 또는 배달상의 착오, 불량품 반품 등에 관한 사항을 클로버 서비스 전화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코닥(주), 코닥 라이브러리 포토콘텐츠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한국코닥(주)에서는 제 1회 코닥 라이브러리 포토 콘텐츠를 성황리에 마무리짓고 그 시상식을 지난 7월 3일 코닥 포토살롱에서 개최했다. 신제품 코닥 뉴 엑라크롬의 출시를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콘텐츠는 라이브러리 기고작가들을 적극 후원하고 폭넓은 창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코닥 라이브러리 포토 콘텐츠에는 1천 여점의 작품



▲한국코닥(주)는 지난 7월3일, 코닥 포토살롱에서 제 1회 코닥 라이브러리 포토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출품된 가운데 나들이 준비를 주제로 한 장막동 씨와 전형국씨 두명이 대상의 영광을 안아 한국코닥으로 부터 '96 아틀란타 올림픽 개막식 관람 및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받고 아울러 여행중 촬영을 위한 뉴 엑타크롬 필름 60통을 부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우수상 2명, 장려상 30명 등 다수의 입상자들이 수상의 영광을 함께 했으며, 입상작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일주일간 코닥 포토살롱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한편, 한국코닥(주)에서는 이번 제 1회 콘테스트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도 제 2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를 발전시켜 나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30개 수출주도형 산업 중점 지원키로

—광학기산업의 경우, 광학기술연구소 설립과 대학, 전문대학의 광학과 설치 추진 계획—

정부는 수출기반확충을 위해 반도체·정보통신기기·가전 등 11개 산업과 평판디스플레이·광학기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 등 총 30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최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주도형인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

겠다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구체적으로 非메모리분야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전문회사를 지원하고 반도체장비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체 출자확대 및 반도체장비공단 인근대학에 장비기술인력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기술이 취약한 정보통신기기산업을 위해 전문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꾀하며 국산개발이 불가능한 CPU(중앙처리장치)의 관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설계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연간 2백명의 인력을 배출하며 중소기업생산제품 전문평가기관의 설립과 중간재의 표준화 및 공용화, 부품 공동구매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장관은 또 가격경쟁력 약화 및 브랜드 이미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전산업을 위해 전통가전에 대한 고부가가치화와 상품공동개발체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고선명TV(HDTV)와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플레이어(DVDR) 등에 대한 産學研 공동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폐가전 처리비용 부과제도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업계의 부담을 경

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해 광학기기 및 평판디스플레이·전자의료기기·정밀계측기기 등 9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광학기기산업의 경우 국산화가 시급한 30개품목의 개발을 위해 「광학기술연구소」의 설립과 한국과학기술원내 20명 규모의 석·박사과정 및 대학·전문대학의 광학과 설치를 추진할 계

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실용화를 위해 벽걸이형 TV·비디오폰 등 응용제품개발 및 부품규격화를 추진하고 韓美 양국 단체간의 장비공동개발을 위한 산업협력을 추진키로 했으며 우수 국산 전자의료기기의 보급을 위해 검사기관의 상호인증 확대 및 의료영상진단기의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산업계를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공급확대 및 대학연구기관의 첨단학과 정원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光電所, 초정밀 조준 레이저 용접장치 개발

광섬유는 통신분야에서 동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전선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굵기는 머리카락 정도에 불과하며 핵심부분의 직경은 1/10³cm도 안된다.

이처럼 가는 섬유가 통신시설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이저를 광섬유 안에 쏘아 줌으로써 신호를 멀리까지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한가닥의 광섬유가 통신정보를 정확하고 멀리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얼마나 정확하게 광섬유안에 잘 쏘아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저 二極體와 광섬유가 초정밀도로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레이저 용접 기술로 용접해 이 두 끝을 고정시켜야 한다.

금년 1월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光電所는 광섬유통신에 필수 기술인 초정밀 조준 레이저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지원

광학기기	-첨단광학기기 개발사업 및 광학기술 연구소 설립추진 -한국과학기술원에 20명 규모 석·박사 과정 설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공학과 설치추진
정밀화학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정밀화학 분야별 연구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화학연구소의 안전성 평가센터를 확대 개편
신소재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특성화 -1~2개 기관 신소재 개발거점 지정
생물산업	-생물산업 실용화기술 연구기반 구축(2000년까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항공기	-연구개발 투자기반 조성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위해 해외기술인력 적극 유치 지원
환경설비	-매연탈황·탈진설비 등 수입의존도 높은 환경기술 개발 -현행 건설업체 중심의 정부환경설비 입찰제도 개선
평판디스플레이	-벽걸이형 TV, 비디오폰 등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 -한·미 양국 단체간의 장비 공동개발 위한 산업협력 추진 -외국의 특허를 기업공동으로 분석
전자의료기기	-의공학과에 대해 연구실습용 기자재 지원 -국산의료기기 보급확대 -병원의 국산의료기기 개발 참여시 기술개발자금 지원
정밀계측기기	-첨단 공동복합연구센터 설립 추진 -대일계측기기 수출촉진단 파견 위한 시장개척 자금 지원

용접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만은 광케이블 건설방면에 이미 상당기간을 투자해 실제 응용면에서도 현저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초정밀 조준 레이저 용접장치는 그동안 줄곧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장치는 광섬유 통신용의 연결인선식 레이저 이극체장치 생산에 직접 이용할 수 있다. 광전소 林耕華소장에 따르면 이 장치의 품질은 이미 국제 수준에 이르렀고 이 장치의 개발로 말미암아 국내 광섬유 통신 부품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부품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광섬유 통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연구소 光電장칠 부문의 孫明照 經理에 따르면 정밀도는 $1/10^5\text{cm}$ 에 다다르며 또한 광섬유와 레이저 이극체를 조준해 레이저 용접을 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컴퓨터의 원도 방식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자가 초보인 경우에도 간단한 훈련을 받는다면 1분 이내에 초정밀 조준을 할 수 있고 10분 이내로 모든 제작 과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레이저를 이용한 초정밀 용접기술 및 장치는 우리나라 관련업체들도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업체들은 대만 공업연구원 광전소에 기술의 사용권이나 장비를 획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U 복사용지 환경 마크 부여기준 채택

EU가 역내제지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사용지에 대해서도 제조공장상의 환경오염 여부를 EU 환경마크 부여기준으로 채택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 복사용지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채택하면서 제조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를 마크 부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기준 충족이 어려운 제3국산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제품

-복사기, 팩스기와 사무용 프린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코팅되지 않은 각기 다른 형태의 복사용지

◇ 환경마크 부여기준

-펄프 및 펄프지 생산과정에서의 각 오염물질별 방출량

· COD(Chemical Oxygen Demand) : 30kg/t 이내

· AOX(Adsorbable

Organic Halogens) : 0.3kg/t 이내

-펄프지 전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t당 30G 줄 이내

-복사용지 포장(외부포장 및 내부포장 모두)에 환경마크 기준 준수 상품임을 나타내는 다음 문구 표시

· Product in compliance with the ecological criteria of the European Eco-Label Award Scheme

· Contributes to reduction of water pollution, global warming and acidification, saving of energy and safeguarding of forests

◇ 적용기간

-조치 발효후 3년간

삼성항공 차세대 CCD 카메라 개발

삼성항공은 최근 이스라엘 아이사이트(I-SIGHT)사와 공동으로 역광보정기능과 동작검출기능 등을 갖춘 2백만원대의 차세대 감시용 CCD 카메라(모델명 SHC-410NAD)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총개발비 5억원을 투입,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햇빛이나 밝은 빛을 등진 역광상태에서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역광보정기능과 물

체의 움직임에 따라 경도가 울리는 동작검출기능을 갖추고 있어 역광발생으로 인해 인물의 확인이 어려웠던 금융회사의 감시카메라와 수면반사가 심한 해안지역의 감시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항공은 이 제품개발로 연간 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항공은 이 제품을 지난 7월부터 연간 2만대씩 생산, 내수시장은 물론 일본·유럽지역에 올해 안으로 1만대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명진크리스텍과 공동으로 빛 파장 분석기 국산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다채널 광검출기를 이용한 분광분석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과학연구원 분광연구그룹 金東皓박사팀이 광학제품 전문생산업체인 명진크리스텍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장치는 다채널 광다이오드 검출기를 사용해 짧은 시간에 여러 파장의 빛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빛을 송수신하기 위해 광섬유다발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재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고 빛의 흡수율 및 투과율 뿐만 아니라 발광특성 및 반사

율측정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윈도 환경에서의 데이터처리 뿐 아니라 그래픽 기능을 첨가해 다양한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광분석기는 물질이 빛을 흡수하거나 투과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광학, 화학, 의학, 색채 및 전자관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다채널 광검출기를 사용하는 분광분석기가 개발되지 않아 일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다채널 광검출기를 이용한 분광분석기가 국산화됨으로써 수요업체들이 수입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캐논, 복사기 주치의 제도 도입, 소비자 신뢰도 제고 총력

복사기시장에 주치의제도가 도입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복사기 전문업체인 롯데캐논은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자사의 모든 복사기에 개별 주치의의를 배정했다.

주치의제도는 복사기 한 대당 전문 기술요원 한 명을 연계해 담당요원이 판매시점부터

폐기시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당 복사기를 관리해 주는 일종의 전담 AS요원제.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불시에 장애를 일으켰을 때 전담요원(주치의)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특히 주치의가 해당 복사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롯데캐논은 이번 주치의제도를 계기로 본격적인 기술영업을 펼쳐 경쟁사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캐논이 구상하고 있는 기술영업의 핵심은 복사기를 파는 사람이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영업영역과 AS영역을 통합하겠다는 것. 즉 영업과 AS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인이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사원에게 이론은 물론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롯데캐논은 이를 위해 그동안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해왔던 3백50여명의 본사 영업사원과 AS요원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모두 주치의 성격의 기술영업인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내에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기존 영업사원의 기술 습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전국 4백50여 대리점에

소속돼 있는 AS요원들도 끊임 없는 재교육을 통해 점차 주치의 수준으로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롯데케논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복사기를 파는 사람과 고쳐주는 사람이 서로 달라 AS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파는 사람이 복사기 기술을 이론적으로만 습득해 소비자의 신뢰도 부족을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 케논측은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 복사기에 주치의를 명기하고 고객과 더욱 밀착한 결과 벌써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인력을 계속 보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자현미경, 과학기술계에서 각광

원자현미경이 과학기술계에 각광을 받고 있다.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의 모습을 낱알이 살펴볼 수 있어 미시 세계의 창(窓)이 된 원자현미경은 지난 80년대에 개발됐지만, 90년대 들어 상용화됐고 최근 2,3년 새에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원자현미경의 대표 주자는 주사터널링 현미경(STM)과 원자힘 현미경(AFM)이다.

원자현미경은 과거 원자는 너무 작아서 아무리 좋은 현미경이 개발된다 해도 볼 수 없

는 통념을 깬 것. 일반렌즈로 대상을 확대해 보는 광학현미경(1세대)과 전자현미경(2세대)에 이어 제3세대 현미경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광학현미경은 배율이 최고 수천배이고 전자현미경은 최고 수십만배인데 비해 원자현미경은 수천만배에 이른다. 이런 놀라운 분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0.1~0.5nm(nm는 10억분의 1m)인 원자 지름의 수십분의 일(0.01nm)까지도 쬐 수 있다.

원자현미경은 원자와 원자를 원자 1,2개 크기 정도로 가까이 접근시켰을 때 원자사이에서 나타나는 전기흐름(STM)이나 작용하는 힘(AFM)을 이용해서 원자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모아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해 내는 것이다.

원자현미경을 쓰면 원자를 하나하나 바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 원자를 움직이거나 물질의 표면을 원자 단위로 정밀하게 변형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전자현미경처럼 진공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액체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살아있는 세포의 구조는 물론 세포분열 과정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분해능력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미세정밀한 작업에 원자현미경을 널리 응용하고 있다.

미세한 반도체 회로상의 전기신호를 재는 것까지 가능하다.

10년전 AFM을 발명한 미국스탠퍼드대 켈빈 켈이트교수는 '이제는 현미경이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노 차원의 미세한 절삭과 같은 작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원자현미경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켈이트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실리콘 밸리에서 파크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PSI)사를 세워 원자현미경을 연간 2백대 정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박상일박사는 '앞으로 원자현미경이 대량 생산되면 대당 가격이 현재 5만~10만 달러에서 훨씬 내려가 고교 실험실에게까지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눈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인식시스템기술 첨단화 경쟁 한창

「마음의 창」인 눈. 눈은 인간의 상태와 내면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정보의 寶庫이다. 최근 이 눈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기술이 폭넓게 개발되고 있다.

개인인식장치, 시선초점카메라, 줄음탐지기, 시선마우스 등이 그것으로 이들 가운데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실용화

계에 접어든 기술도 있다.

미국 아이덴티파이社は 인간 눈의 망막구조를 활용한 개인인식기술을 개발, 지난 85년 개인인식장치의 제품화에 성공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망막인식장치의 구조를 보면 우선 약한 적외선을 망막에 비춰 반사광선을 탐지한다. 혈관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온도가 높아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따라서 반사광선은 혈관의 모양을 표현하게 된다. 아이덴티파이社の 개인인식장치는 이 모양을 디지털신호화해 개인데이터로 축적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그러나 1세트에 약 2천2백만원을 호가해, 이용범위가 한정돼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4백세트 정도의 판매에 그쳤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제품을 4백만원에 발매했다.

전자부품의 저가격화로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가능해진 것이다.

망막구조를 이용하는 인식시스템의 약점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처럼 좁은 구멍에 눈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망막에 적외선을 비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개인인식기술로 최근 주목받기 시

작한 것이 홍채의 모양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억지로 장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홍채인식장치는 미국 센서社가 개발했다. 이 장치는 망막 대신 홍채를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기본원리면에서 아이덴티파이社の 망막인식장치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 이 장치는 외형이 크고, 인식시간도 일정치 않아 아직 실용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센서社는 이 제품을 실용화하기 위해 회로의 LSI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센서社는 카메라 크기를 가로·세로 각 12cm 정도로 줄이는 한편, 인식시간도 2초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눈의 움직임은 크게 시선의 변화와 눈꺼풀의 깜박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선의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은 카메라업체들을 중심으로, 눈깜박임을 활용하는 기술은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실용화단계에 들어섰다.

일본 캐논은 지난 88년부터 '시선입력자동초점카메라' 개발을 추진해왔다. 자동초점카메라는 파인더를 들여다 볼 때 화면중심에 핀트가 맞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핀트를 맞추려는 대상물이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초점카메라는 사전초점조정기능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시선입력자동초점카메라는 초점이 항상 촬영자가 주시하는 물체에 자동적으로 맞춰진다.

캐논은 92년 발매한 자동초점카메라 「EOS5」에서 최초로 이 기술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탑재돼 있는 LSI의 데이터처리능력문제로 카메라를 세워 촬영하거나, 움직이는 대상을 쫓아가며 촬영할 경우는 시선입력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발매한 자동카메라 「EOS55」는 LSI진보에 의한 처리능력 향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에 반해 PC에 시선입력방식을 채용할 경우는 우선 얼굴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선의 각도를 계산, 위치를 산출해야 한다. 이 점이 시선입력방식 PC채용에서의 어려움이다.

광학기기를 개발·제조하는 나크社는 전용안경의 양쪽 렌즈 가장자리에 적외선을 반사하는 3장의 둥근 실(Seal)을 붙이고, 디스플레이 양쪽에 설치한 카메라로 실의 움직임을 파악해 시선움직임을 검출한다.

3장의 실에 둘러싸인 부분은 눈이 존재하므로 이곳을 컴퓨터가 화상처리해 안구의 위치를 인식한다. 그 뒤 과정은 시

선입력카메라의 원리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원리를 응용하면 시선입력방식의 PC제작이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형 PC업체는 이 장치를 구입, 이를 PC에 채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2억5천만원을 호가해 제품보급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나크社は 2천5백만원대에 판매할 수 있는 개량형을 연구중에 있으나, 그래도 보급가능가격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시선이 마우스를 대신하는 컴퓨터의 일반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 신도리코,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

사무기기 전문업체인 신도리코가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도리코는 국내 사무기기 시장이 매년 10%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외영업부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과 함께 해외지사 확대를 적극 추진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미국·일본 등 해외지사와 국내 해외영업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지 시장상황에 맞는 제품을 지역별 전략 상품으로 설정, 본격적인 수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개발한 잉크젯방식의 컬러프린터-팩시밀리 복합기(모델명 IF99)를 독일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월 1만여대씩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처음 수출을 개시한 디지털인쇄기도 홍콩에 올 연말까지 매월 1천대씩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사기의 수출 주력기종도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속복사기에서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은 40장 이상의 고속복사기쪽으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최근 수출 전용 고속복사기의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상반기 프린터 시장 전년 대비 50% 성장

올 상반기 국내 프린터 생산

업체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어난 54만1천대를 판매해 1천9백45억원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LG 전자·한국HP·큐닉스컴퓨터·신도리코 등 국내 프린터 생산업체들은 상반기에 레이저프린터 11만3천대, 잉크젯프린터 42만8천대를 판매해 전년동기보다 판매대수로는 각각 24%와 59%, 금액으로는 12%와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국내 프린터시장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제품군은 80컬럼까지 인쇄할 수 있는 A4용지 잉크젯프린터(개인용 프린터)로 15만7천대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무려 1백98%나 늘었다.

또 A3용지 출력이 가능한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판매량도 지난해 보다 77%나 늘어난 2

(대수 : 천대, 금액 : 억원)

		95년 상반기		96년 상반기		전년대비성장률(%)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L B P	저가형 A4	59	266	74	286	25	8
	A4	13	130	12	111	-8	-15
	B4	5	75	2	32	-60	-57
	A3	14	259	25	385	77	49
	소 계	91	730	113	814	24	12
잉 크 젯	80컬럼(개인용)	53	184	157	486	198	164
	80컬럼(업무용)	180	469	240	480	33	2
	136컬럼(흑 백)	36	205	31	165	-14	-20
	소 계	269	858	428	1,131	59	32
	총 계	360	1,588	541	1,945	50	23

만5천대로 급신장했다.

반면 B4용지 레이저프린터는 2천대가 판매돼 지난해보다 60% 격감했다.

올해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된 A4용지 보급형 레이저프린터는 관련업체가 2백% 이상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7만4천대가 판매되는데 그쳐 25% 성장에 머물렀다.

이처럼 프린터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개인용 잉크젯프린터 판매가 크게 늘어난데다 90년대 초반 업무용 프린터를 구입한 기업체들이 제품을 교체하면서 기업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업체는 하반기에는 저가형 A4용지 레이저프린터와 잉크젯프린터 판매가 급신장해 레이저프린터가 16만5천대, 잉크젯프린터는 42만5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올림푸스, 무게 8.5온스 소형 카메라 출시

일본 올림푸스사가 출시한 38~105mm카메라 「스타일러스 줌 105」은 크기가 4.7×2.5×1.7인치이고, 무게가 8.5온스로 3배줌 카메라중 최소·최경량제품이다. 가격은 4백56달러.

화상회의 전용 PC 디지털카메라 업체간 치열한 경쟁 예상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화상회의 전용 PC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가 최근 잇따라 출시돼 초기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10여개의 멀티미디어 영상업체들이 2·4분기 들어 네트워크나 PC통신을 즐기면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PC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경쟁적으로 출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7개 업체가 추가로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화상회의시스템에 필요한 PC용 디지털 카메라 공급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요 PC업체 대부분이 화상회의용 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멀티 PC를 출시할 계획을 세워놓은데다 멀티미디어카드 업체들도 PC용 디지털 카메라가 포함된 저가형 화상회의 패키지를 잇따라 개발, 양산을 앞두고 있어 수요가 급팽창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멀티 영상업체인 팬택은 1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PC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PC컬러 카메라」를 개발, 지난 7월말부터 시판하고 있으며 선인정보

통신도 PC용 컬러 디지털카메라 「아이콤」을 개발, 최근 양산에 착수했다.

국제전자도 자체 기술로 PC용 비디오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성공, 이르면 이달 중 양산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며 삼성항공은 최근 자체 기술로 PC용 카메라 디자인을 모두 끝마치고 국내 PC업체와의 OEM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세이와시스템즈코리아는 미국 커넥티스사의 휴대형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컬러퀵캠」을 시판중이며 가산전자도 일본 도시바의 PC용 화상회의 카메라 「IKM 28」 모델을 도입해 자사의 영상카드에 옵션형태로 묶어 시판에 들어갔다.

업체전문가들은 오는 9월 5대 PC업체들이 PC용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OEM 주문을 크게 늘릴 것이 확실해 하반기에만 총 20만대의 카메라가 판매돼 3백억원의 신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전자, 멀티미디어프라자 100호점 개점

현대전자가 백화점 위주의 판매체제를 대리점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는 PC 팩스 복사기 게임기 등 각종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멀티미디어 프라자」 1백호점을 서울 방학동에 개점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멀티미디어 프라자를 서울 부산 광주 등에 설치하기 시작한 이 회사는 올 연말까지 2백50개를 개점할 계획이다.

현대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내수판매가 부진하다고 보고 멀티미디어 프라자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멀티미디어 프라자 안에 복사방 게임방 팩스방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소비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체 적극 육성

낙후된 국내 계측기기사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낙후된 국내 중소기업체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3차원 측정기·유량계 등 21개 품목을 육성 대상품목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를 생산하는 30개 중소기업체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기청은 계측기산업이

모든 산업에 선행하는 기반산업으로 국내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측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계측산업은 외국업체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고 수입 의존율이 무려 70%를 기록, 지난해 총 무역수지 적자의 25%를 차지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체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25개 품목,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기술 정도·제조 및 검사 시설 등 10개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 대상 품목 및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8월

부터 △노후설비 교체나 자동화 추진시 시설자금 우선지원 △병역특례 지원과 산업연수생의 우선배정 및 수출시장 개척지원 △연구기관과의 연구

◇중소계측기기 육성지원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상 품 목
덕인	3차원 측정기
개풍광학	적외선식 복사온도계
테스콤	무선전화 감도측정기
정엔지니어링	수질자동측정기
도남시스템	가스성분 분석기
바텍시스템	Function Tester
신코	분광광도계
아이디얼시스템	마이크로파 수분측정기
카스	전자저울
데스콤	전자저울
해창계기	전자저울
한국오발	유량계
하이트를	유량계
대흥계량기 제작소	유량계·수도미터
한국유체산업	유량계
대한정밀공업	수도·가스미터
신한정밀공업	수도·가스미터
대성계전	가스미터
동화계량기	연료유미터
동남	연료유미터
우진계기공업	압력계측 전송계기류
한국일측	에어 마이크로미터
대원전기통신	전력량계
경도 정밀공업	측중기
한국도로전산	측중기
대영정밀	재료물성 시험기
한영전자	자동온도 측정기류
오토닉스	자동온도 측정기류
살롬엔지니어링	열차 자동종합 측정기류
서현전자	크랩프미터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 계측기기 신규개발과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 외에도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계측기기 생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리코사, 프랑스에 복사기용 토너공장 건설기로

일본 복사기 업체인 리코사가 프랑스 콜마르 인근에 복사기용 토너 생산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회사측 관계자가 최근 밝혔다.

리코 프랑스 현지법인인 「리코 인더스트리 프랑스 S.A」는 26억엔을 투자, 오는 97년 10월부터 가동하며 월 1백20톤을 생산해 유럽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리코는 현재 싱가포르와 영국 각 1곳과 미국 2곳을 비롯, 모두 4개의 토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고마쓰, 불화아르곤 엑시머레이저 발전기 양산

일본 고마쓰가 1G D램급 이상의 메모리생산에 필요한 스테퍼광원용 ArF(불화아르곤) 엑시머레이저 발전기를 오는 98년부터 양산한다고 「日經産業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ArF 엑시머레이저는 선풍 0.18 μ 급 이하 미세가공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하나다.

고마쓰는 지난 4월 약 10억엔을 들여 건설하기 시작한 오야마공장내 엑시머레이저발전기 생산라인을 통해 ArF 엑시머레이저발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고마쓰는 오야마공장이 최초 가동되는 올연말께에는 우선 ArF 보다 파장이 긴 KrF(불화크립톤) 엑시머레이저발전기를 생산하고, ArF 엑시머레이저발전기는 오는 98년부터 본격 생산해 첫째 10~20대정도를 출하할 계획이다.

고마쓰는 히라쓰카시 중앙연구소를 통해 ArF 엑시머레이저개발을 추진, 지금까지는 주로 반도체업체의 연구개발용으로 소규모 출하해 왔다.

실리콘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는 스테퍼광원으로는 파장 3백65nm의 고압수은램프인 i선이 오랜 기간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파장이 긴 i선은 회로선풍 0.3 μ 까지의 미세가공이 한계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0.25 μ 급 미세가공을 필요로 하는 2백56M D램에는 파장 2백48nm인 KrF 엑시머레이저가, 0.18 μ 급 기술이 필요한 1G D램급 이상에는 파장 1백93nm의 ArF 엑시머레이저가 사용될 것이라는 견

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엑시머레이저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는 일본 고마쓰 외에 미국의 사이머레이저테크놀로지, 독일의 램더퍼직 등이 있다.

복사기업체, 시장경쟁 치열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롯데캐논 등 복사기 전문업체 3사간에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대전자 대우통신등 후발업체들의 시장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시장의 성장세마저 크게 둔화되고 있는 때문이다. 각사는 하반기 들어 디지털복사기, 팩스 및 프린터와의 복합기 등 회심의 역작(?)을 내놓고 하반기 승부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시장경쟁의 총성을 올린 쪽은 코리아제록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6월초 국내 최초로 디지털복사기 「에이블시리즈」를 선보이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디지털복사기는 한마디로 복사용지가 필요없는 복사기. 디지털방식이라 PC를 통해 인쇄된 화상을 편집할 수 있고 축소 확대는 물론 화상을 구부리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 또 팩스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대량으로 인쇄해도 화질의 劣化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 기존 제품보다 3배이상 비싼 점이 커다란 단

점이지만 기술개발로 점차 아날로그형과의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코리아제록스는 현재 디지털복사기 기술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 기술제휴사인 후지제록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술자급률을 3년내 현재의 30%에서 7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복사기시장에서 4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신도리코는 지난 6월 말 하반기 시장에 주력상품으로 삼을 잭프리 잭팩스 등 다양한 기능의 복사기와 복합기를 선보였다. 특히 잭프리는 사람의 접근을 감지해 자동으로 예열모드에서 작동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존의 자동걸림 방지장치와 더불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잭팩스는 보통 용지 팩시밀리에 컬러프린터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90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신도리코는 현재 30% 가까이 디지털복사기시장이 형성돼 있는 일본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 디지털복사기 시장은 시장여건 미성숙과 가격경쟁력 미비로 98년이나 돼서야 본격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가서야 디지털 제품을 내놓을 예정.

롯데전자는 올 연말까지 디지

털복사기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때까지는 서비스확충 등을 통한 기존제품의 판촉활동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우통신 현대전자 등 후발업체들의 시장쟁탈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우통신은 올 초 업계 처음으로 중속기종 2개 모델에 대한 25% 가격인하를 전격 실시하는가 하면 지난해 인수한 라이카대리점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강화하여 시장세어를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 올 목표는 지난해 4~5%의 시장점유율을 10%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대전자도 국내영업본부 신설에 이어 사무·통신기기 등의 유통망인 멀티플라자를 통해 복사기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후발업체들의 추격에 대해 디지털화 복합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문업체들의 변신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성화학, 레이저 프린터용 OPC 드럼 생산

-월산 9만4천개 설비운영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동성화학그룹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연간 1백만개 생산규모의 레이저프린터용 OPC(유기광전도체) 드럼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동성은 신발접착제 폴리우레탄등 화학계통 중심의 그룹주력사업을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건설계획을 확정지은 것으로 밝혔다.

동성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DC에 공장운영을 전담할 현지법인 동성아메리카사를 자본금 67만 8천달러로 설립했다.

또 생산기술 및 설비 도입을 위해 지난달 일본의 OPC드럼 제조회사인 샌테크노스타사와 5백91만달러 상당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동성이 총 6백80만달러를 들여 건설할 이 공장은 워싱턴 DC근교의 5천여평 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올 연말까지 완공돼 내년 1월부터 월 9만4천개의 OPC드럼을 생산할 예정이다.

동성측 관계자는 '프린트용지에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인쇄하는 OPC드럼은 5천회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라며 '미국 컴퓨터 소모품 시장을 중심으로한 전세계 시장에서 연간 1천5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그룹사로 출범한 동성화학그룹은 폴리우레탄 생산업체인 동성화학을 모체로 골프 토털브랜드 회사인 (주)팬텀등 국내외 13개 법인을 거느리고 있으며 올 매출목표를 3천7백억원으로 잡고 있다.

일본 마쓰시다 PC용 비디오 카메라 시판

일본 마쓰시다전기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PC용 비디오 카메라를 시판, PC 주변기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일본 「日刊工業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쓰시다는 다른 경쟁업체들에 한발 앞서 PC용 동화상 입력 비디오카메라를 생산, 시장선점에 나선다.

마쓰시타의 이 시장 진출은 최근들어 PC용 디지털카메라가 시장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마쓰시타는 디지털카메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비디오카메라를 시판할 계획이다.

마쓰시타가 시판할 PC용 비디오카메라는 기존 비디오카메라와 달리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동화상을 디지털데이터화해 메모리카드에 기록한다. 이 카메라는 스틸모터를 사용하면 정지화상용 입력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메라는 본체와 전용 캡처보드를 조합해 제품화한 것으로 데이터를 캡처보드가 받아 PC상에서 가공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들어 프레젠테이션 및 판촉용으로 PC상에 동화상 데이터를 입력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고가의 비디오보드가 필요해 실용화에 어려움

이 있었다.

마쓰시타는 이 PC용 비디오 카메라를 자사의 PC 주변기기 시리즈인 「P3」제품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조기 시장진출을 통한 차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코닥(주), 제6회 생활사진 콘테스트 문화사진 작품 접수

한국코닥(주)는 제6회 생활사진 콘테스트를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보다 친숙하게 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생활사진 콘테스트는 가족사진, 레저사진, 문화사진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 두번째 주제인 레저사진 공모전이 지난 8월로 마감되고

제3단계인 문화사진 공모전이 우리 고유의 문화재나 문화행사 현장을 담은 사진 또는 한국의 얼과 멋, 한국 고유의 정취가 가득 담긴 작품을 주제로 오는 10월 2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콘테스트의 연말 본상 입상자에게는 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되고 입상작들은 코닥포토살롱에서 전시회를 갖게 된다.

한국코닥(주), 연극영화학과 학생 대상 촬영 및 조명 워크샵 개최

한국코닥(주) 영화영상팀에서는 국내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촬영 및 조명 워크샵을 지난 7월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개최하였다.

지난 1992년 최초로 영화,

한국코닥, 문화사진 공모전 응모요령

구 분	내 용
주 제	우리 고유의 문화재나 문화행사 현장을 담은 사진 또는 한국 고유의 정취가 가득 담긴 문화사진
작품규격	컬러, 흑백 공히 8"×10"로 인화한 작품(응모작품수 제한 없다.)
응모방법	작품뭉치면 우측하단에 제목, 촬영장소, 카메라명, 사용필름, 출력자성명, 주소, 연락전화 명기
접수기간	96년 10월 25일까지(당일 도착분 마감)
접 수 처	(110-606)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03호 스포츠조선 생활사진 콘테스트담당자앞(직접 또는 우편접수)
입상작 전시	본상 입상작품은 1996년 11월 29일~12월 5일까지 코닥포토살롱에서 전시 예정

CF 카메라맨을 위한 촬영기술 워크샵을 마련하여 관련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어온 코닥은 최근 연극영화학과 학생들 중 영화제작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샵 프로그램은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접하기 어려우면서도 영화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촬영과 조명기법을 과학적인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만, 홍콩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본 유명브랜드 카메라 유통 마진률 국산제품의 3.8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난

3월에서 5월 기간동안 실시한 우리나라 주요 수입상품 유통 마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서울과 부산지역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메라 가운데 중국, 대만, 홍콩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캐논, 아시카, 리코, 펜탁스 등 일본 유명브랜드 제품들의 유통 마진율이 249%로 동급기종의 국산제품 마진율 65%에 비해 무려 3.8배가 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아직도 국내 일부 카메라 소비자들의 지나친 외제 선호도와 불합리한 유명브랜드 구매 형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 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주요 수입상품중 유통 마진률이 300% 이상 높은 것으로는 청바지, 화장비누, 아동복이

선정되었으며 다음이 카메라를 비롯한 스키용구, 화장품, 원두커피, 운동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입제품들의 유통마진이 높은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외국브랜드 선호경향과 독점적 수입업체에 의한 과도한 마진 및 가격 결정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카메라는 아직까지 제품의 기술집약도가 낮거나 노동집약적인 저가형 모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 자국내 생산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본 자사 브랜드를 부착한 후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이므로 알려졌다.

이들 수입 카메라들의 유통 형태 및 유통 단계별 마진률을 살펴보면, 유통단계가 [수입업체] - [소매상] - [소비자] 순으로 2단계형을 보였으며 유통 단계별 마진률로는 수입제품 총마진률 249% 가운데 수입업체가 107%, 소매상이 142%인 것으로 나타났고 마진의 구성비로는 수입업체가 43%, 소매상이 57%를 차지하여 아직도 수입업체 보다는 소매상이 훨씬 높은 마진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카메라 조사대상 품목 현황

브랜드	원산지	모델 및 규격
캐논	대만	PRIMA MINI Date PRIMA ZOOM 70F
아시카	홍콩	MINI TEC 90mm ZOOM
리코	대만	FF-9D SR-10D ZOOM
펜탁스	중국	PC-30 PC-50

* 유통마진율(%) = $\frac{\text{소비자 판매가격} - \text{수입원가(공장도가격)}}{\text{수입원가(공장도가격)}}$

* 수입원가는 CIF(물품대+운임+보험료) + 통관관련 제세(관세+부가가치세+교육세 등)

일본, 미놀타사 APS 카메라

Vectis 25 증산키로

-지난 7월부터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에서 생산시작-

미놀타사는 최근 APS 카메라, Vectis 25에 대한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월생산량을 초기 3만세트에서 5만세트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미놀타는 Vectis 25 출시 이후, 한달간 6만대가 넘는 양을 주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놀타는 현재, APS 카메라를 일본 오사카의 사카이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주문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놀타의 APS 카메라, Vectis 콤팩트카메라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Vectis 25로, 미놀타는 최근 증가하는 주문량을 생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공장에 Vectis 25 전용 조립라인을 만들어 월 2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회로판을 위시한 주요 부품은 일본 사카이공장에서 공급하며 기타 부품은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놀타사는 초기에 APS 카메라 생산기지를 단계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APS 카메라의 순조로

운 판매로 인해 일본 내에서의 생산량을 현 수준을 유지시키면서 자체적으로 해외생산회사를 새로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후지필름(주)

'96 LAB-SHOW에 참관

-우수거래처 사장, 임직원과 본사 LAB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48명이 선진사진기술 견학-

한국후지필름(주)는 지난 6월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96 LAB-SHOW에 참관했다.

한국후지필름 장형팔 상무를 단장으로 후지의 우수거래처 사장, 임직원과 본사 LAB 업무담당자 및 FA기기 담당

자를 포함한 48명으로 구성된 '96 LAB-SHOW 참관단은 '96 LAB-SHOW를 둘러보고 이어 후지필름 아시하라공장 견학과 본사 방문을 통한 선진 사진기술을 견학함으로써 국내 사진업계의 기술발전과 고품질의 포토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지필름은 '96 LAB-SHOW에서 미니랩시스템(SFA-238, 258, 278)과 필름 프로세서, FP362B 장비를 포함한 디지털 이미지 워크스테이션 AL-1000 및 신규격사진시스템 AP-1 및 하이테크 사진기술장비를 출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후지필름(주)는 지난 6월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동경에서 개최된 '96 LAB-Show에 참관했다.

**삼성향공업(주), 인간공학
카메라 시판**

삼성향공이 눈이 나쁜 촬영자의 시력에 따라 뷰파인더의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간공학 카메라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총 2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인간공학 카메라(모델명 KENOX-Z125)는 초점거리가 38~1백25mm인 고배율 줌 카메라이다.

이 카메라는 시력이 좋지 않은 촬영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이얼식으로 시도조절장치를 부착, 촬영자의 시력에 따라 카메라 뷰파인더의 화면을 조절할 수 있어 정확한 촬영이 가능하다.

또 피사체를 보기가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피사체가 육안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실상식 뷰파인더를 채택했으며 동공경을 키워 빛을 보다 많이 통과시킴으로써 피사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의 외관을 단순화하고 손에 잡기 쉽게 제작하는 등 인간공학 개념을 카메라에 도입했다.

**삼성향공(주), 디지털 실물화상기
개발, IR52 장영실상 수상**

삼성향공이 개발한 디지털

실물화상기는 세계 최초로 영상현미경 기능을 실물화상기에 내장하여 실물화상기와 영상현미경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광응용 영상기기 제품이다.

실물화상기는 인쇄물 제작, 화상회의, 교육, 의료, 정밀검사, 사진 등에 사용되는 영상입력장치로 TV,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등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지금까지 실물화상기에는 고배율로 확대하여 보는 영상현미경 기능이 없어 영상현미경을 별도 구입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 실물화상기는 본체에 별도의 고배율 줌 영상현미경 모듈을 부착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체의 크기에 따라 고정배율(1백배, 2백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 8백배까지 컬러로 볼 수 있게 했다.

또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디지털영상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해 기존 아날로그제품에 비해 화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부품수도 기존제품의 50% 수준으로 줄여 제품의 크기와 무게도 절반 이하로 경량화했다.

삼성향공은 디지털실물화상기 개발초기부터 고배율 줌렌즈, 자동초점조절용 오토포커스 반도체, 영상현미경 렌즈모듈 등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부품자립도를 높여왔다.

이외에도 영상현미경 모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명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파이버를 응용한 현미경 내부 투영방식 기술을 바탕으로 현미경 및 조명을 일체화함으로써 별도의 영상현미경 조명장치없이 광원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용자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렌즈를 통해 입력된 영상을 리모컨 조작으로 상하좌우 반전이 가능토록 했으며, 입력된 물체를 화면에 정지시켜놓고 다음 물체를 준비할 수 있는 영상프리즘기능도 채용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헤드 회전각도가 90도인데 비해 이번 제품은 2백7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 원하는 피사체를 자유자재로 어느 각도에서도 입력이 가능케 했다.

제품의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존 제품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해 「GD」마크를 획득했다.

**테크라프, 중국에 카메라용 리튬
전지 수출**

-연 1백만달러 규모 OEM 방식-

리튬전지 전문업체인 테크라프가 중국에 카메라용 리튬전지를 수출한다.

테크라프는 지난 5월 중국의 알칼라인 1차전지 전문전문업

체인 람프사에 「CR123A」, 「CR P2」, 「2CR5」 등 3종의 카메라용 리튬전지를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차로 총 5만 1천세트(8만달러)의 주문을 받아 보아 2회에 걸쳐 8천세트를 샘플용으로 선적한 데 이어 지난 8월15일 「CR 123A」 7천세트와 「CR-P2」와 「2CR5」 각각 3천세트 등 총 1만3천세트(2만5천달러)의 리튬전지를 선적했다고 최근 밝혔다.

테크라프는 8월 말에 1차 주문에 대한 잔여물량인 3만세트를 추가로 선적하는 한편 내달부터는 주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메라용 리튬전지의 대중국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테크라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상업용 리튬전지 생산라인을 합덕공장에서 정주공장으로 옮기면서 생산물량이 달려 주문물량을 4회로 분할해

선적했으나 이제는 생산라인을 정상가동하고 있어 주문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람프사의 카메라용 리튬전지 주문물량이 월평균 8만달러에 달해 연간 1백만달러 정도의 카메라용 리튬전지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회사는 람프사가 카메라용 리튬전지 외에 PC에 내장되는 메모리 백업용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전지도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중국으로의 리튬전지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남정공(주),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 E2N 국내 시판

카메라 및 광학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아남정공이 일본 니콘사와 함께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형 디지털 카메라(모델명 E2N)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에 발표했다.

오는 10월 국내시장에 판매될 「E2N」은 사진 전문가들의 수요를 겨냥, 니콘사의 기존 제품인 「E2」의 기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해 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광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촬영을 할 수 있는 고감도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촬영한 영상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기 전에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 기능도 갖고 있다.

이 제품의 고체촬상소자(CCD)는 1백30만개의 화소를 가져 해상도가 우수하다.

이와함께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빛 밝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기능도 추가했다.

이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E2」보다 25% 가량 낮은 1천2백89만원이다.

건강하게 삽시다

인삼이 몸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은 사상체질 중에서도 '소음인' 체질입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며 얼굴도 약간 창백하고 마른 체형이며 약간 내성적인, 이러한 소음인 체질은 소화기 계통 쪽이 조금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만면에 '실열성' 체질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이 있는 분들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항상 뜨겁고 기가 너무 왕성하고 맥박이 지나치게 힘있게 뛰며 찬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소변 양이 적고 소변의 색이 붉고 대변도 굳은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체질이 '실열성' 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인삼이 잘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 머리가 잘 아프고 쉽게 어지럽고 화를 잘 내며 삼기가 잘 되는 그러한 타입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병이든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인삼을 금해야 합니다. 인삼이 안 맞는 분들이 인삼을 쓰시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눈에 충혈이 오고 머리가 아파게 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삼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여부에 따라 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학원사 발행 「MBC 라디오 동의보감」